

투데이 칼럼

메시지 전달능력의 기법

커뮤니케이션은 콘텐츠와 스타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큰 줄기다.

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만들기가 필요하다.

핵심을 꿰뚫는 내용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므로 핵심 콘텐츠가 실득력이 있으면 스타일(표현력)이 다소 미흡해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표현력이 아무리 좋고 깔끔해도 틀을 만든 내용이 없는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실망을 주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

물론 내용 만들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노력과 학습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곧 내공이다.

내용이 짧으면서도 자세하고 함축적이면서 이해가 잘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대단한 내공이 있어야 한다.

길고 지루하게 요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도록 써 놓은 글이나 말을 접할 때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상대에 대해 평가를 바로 하게 된다.

메시지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힘 있는 메시지이고 힘없는 메시지가 있는데 힘 있는 메시지는 듣고 나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공감하는 것이고 힘없는 메시지는 듣고 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김양욱

한국스피치컨설팅 대표

수가 없는 것이다. 공허하고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은 대부분 힘없는 메시지가 된다.

상품 마케팅이나 정치 캠페인 모두 국민을 설득하는 스피치로 해야 한다.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핵심 메시지가 짧고 명확해야 한다.

상품 마케팅이나 선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같은 것이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특히 내용과 포장이 모두 좋아야 그 스피치는 성공할 수 있다.

상품이나 사람이건 조직이건, 내용과 포장이 다 좋아야 알아주는 시대이다.

사람도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했다고 해서 '누군가 알아주겠지' 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너는 너 자신을 제값에 팔지 못

했다'는 것이 잘못이다는 말이 있다. 자신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상품 마케팅이나 정치나 '규정하기'의 게임이라는 것이다.

이 '규정하기'에서 유리한 틀을 선점한 사람이 이기게 된다.

연설에서 인터뷰에서, 상품 광고에서, 현수막에서 토론에서 한 줄의 '강령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짧고 구체성 있게 우리 상품과 후보의 핵심컨셉을 알려야 잘 하는 스피치다.

현대인들은 모두 다 바쁜 삶을 살고 잠깐 맛에 살고 있는 추세이다.

그들이 주목해야 할 이유를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알릴 수 없을 때 그 상품이나 후보는 무관심이 영역으로 밀려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생동감 있고 구체적 표현력을 길러야 한다.

스피치기법 터득하여 눈에 보듯 시각적으로 말하고 그 표현에 열정과 성실함이 살아 있을 때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고교생들의 발표 시간에 '성실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 그 학생들 중 한 명이 "우리 아버지는 과일가게를 하며 30년 동안 저울눈금을 양심적으로 숙이지 않아서 성실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표해서 칭찬을 받았다.

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원칙은 많이 있으나, 필자는 9개 원칙을 소개한다.

핵심의 원칙, 간결성의 원칙, 단순함의 원칙, 생동감의 원칙, 긍정의 원칙, 공간의 원칙, 스토리텔링의 원칙, 시각화의 원칙, 유머의 원칙이다.

이 원칙과 사례를 잘 활용하는 스피치는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다.

특히 요 사이는 정치선거, 각종 선거로 자신의 능력을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는 시대이다.

실득력 있는 메시지로 성공하고 싶다면 핵심컨텐츠와 스타일(포장)을 학습하는 스피치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사설

바이든 시대 미중 패권경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세계질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년 전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은 중국을 '견전한 경쟁을 벌이는 경쟁 상대'로 규정했다.

동시에 중국에 인권 등 민주주의 가치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최근 그의 발언을 보면 중국을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중국을 편입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접은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세계 패권 추구에 나섰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얻은 길을 그대로 걷고 있다.

중국은 우선 서태평양에서 지역 패권을 장악한 뒤 점차 세계 패권을 노릴 것이다. 미국을 몰아내고 서태평양을 '중국의 호수'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이 여전히 압도적이고 인도, 일본 등 맹목적인 강대국도 걸림돌이다.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면

서 점차 세계 패권으로 나갈 것이다.

경제력을 키우면서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갈 것이다.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중국은 GDP 규모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재건하면서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트럼프는 지난 4년 동안 동맹을 적대시켰다.

이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에서 동맹 우선(Alliance First)으로 바뀌어야 한다. 바이든은 민주주의 동맹국을 초청해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했다.

기존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시켜 G10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미중 경쟁에서 어느 쪽이 국가 역량을 더 강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문제는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기도 할 것이다.

전주 우림교의 왜색 논란

일본식 건축물 같다는 왜색 논란으로 전주 우림교가 개·보수에 들어간다. 경관 시설을 다시 고친다는 점에서 비난이 예상된다.

전주시는 조만간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우림교에 설치된 경관 시설 개·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림교는 전주 삼천을 가로지르는 90m 길이 다리다. 건설 뒤 30년이 지나 미관상 개선이 필요해 지난 2019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경관 시설을 설치했다.

건축비 8억 원을 들여 지난해 연말까지 마무리했다. 우림교 보도 위에 나무 지붕을 씌우고 다리 양옆에도 창살을 얹은 목재와 금속 구조물을 이었다. 야간에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명을 달았다.

전주시는 경관 시설 설치로 새로운 랜드마크 마련과 보행자 편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SNS 등을 통해 '우림교가 일본 양식을 본뜬 것 같다'는 반응들이 올라오며 왜색 논란이 일었다.

우림교 경관 시설은 공사를 마치고 보행 통로를 개통하면서 불거졌다. 기존 콘크리트 다리에 경관 조성을 위해 새로 목재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본 건축물의 지붕 등을 연상하는 양식을 사용해 시민들의 비난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배출 결정과 수년 전부터 이어진 감등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벌어진 왜색 논란에 전주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전주시는 우림교에 설치한 시설을 보수하기로 결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경관시설에 대한 일련의 지적을 인정하고 보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직 공사와 관련해 세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전문가 진단을 통해 시설 일부를 개선할지, 상당 부분을 뜯어고칠지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완공된 구조물을 바꾸는 만큼 추가 비용 투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유채밭과 조화 이룬 나무들



1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채밭에 서 있는 나무들이 유채꽃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멕시코 어머니들 "사라진 아이들 찾아주세요"



'어머니날'인 10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실종자 어머니들의 시위가 열려 한 참가자가 실종자 발견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정보에 대한 '보상'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멕시코시티 등 곳곳에서 실종자 자식을 둔 어머니들이 거리로 나와 행진하며 정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